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온기 '본향을 찾아오다'



출향작가들의 모임인 무진회가 제20회 정기전(26일까지)을 10년만에 광주에서 연다. 관람객들이 광주예술의전당 전시실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모습.

'고향'과 '본향'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전자는 태어나고 자란 곳을, 후자는 시조(始祖)가 난 곳 또는 본토를 뜻한다. 고향이 자신의 대까지만 한정한다면 본향은 좀 더 근원적인 의미까지 포괄하는 것 같다.

"사는 곳이 고향"이라는 말이 있지만, 사는 곳이 본향이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는다. 두 어휘의 무게감이 다르게 다가오는 이유다.

광주와 전남을 떠나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출향작가들이 10년만에 전시를 열어 화제다.

출향작가들 모임인 '무진회' (회장 정란숙)가 20회 정기전을 광주예술의전당 전시실에서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

'무진회, 본향(本郷)을 찾아오다'라는 전시 주제는 전시의 의미를 오롯이 담고 있다. '고향을 찾아오다'로 하지 않고 '본향을 찾아오다'로 한 것은 그만큼 고향에 대한 애정이 깊음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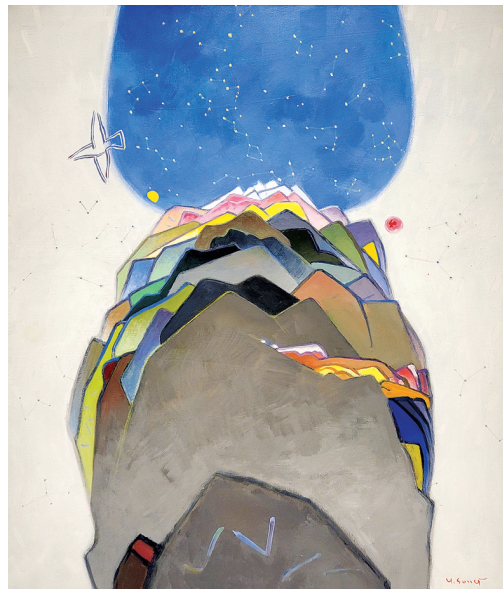
정란숙 회장은 "고향은 모두의 꿈이다. 그리고 본향이기도 하다. 10년 만에 광주에서 전시를 갖게 돼 너무나 기쁘다"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다정한 온기는 잊을 수 없다. 그 온기를 느끼고 10년 만의 광주 전시를 작가들의 마음 온도를 높여 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모두 43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서양화, 동양화, 조각 등 작품들도 다채롭다. 고완석, 공병, 박봉수, 김봉민, 김동희, 박현수, 송용, 정란숙, 정애숙, 정희남, 하철경, 홍문규 등의 작품을 볼 수 있다.

당초 무진회는 지난 2001년 4월 창립했다. 광

출향작가들 모임 '무진회' 정기전 26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전시실 고완석·송용·정란숙 등 43명 참여

주전남 출향작가들이 김영중 작가의 연회조형관에 모여 서로 소통하고 의지하며 창작활동을 도모하자는 취지였다. 그동안 코로나 등으로 2회 정기전을 열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꾸준한 전시를 개최해오고 있다.



송용 작 '시.공.새'

광주에서는 지난 2013년 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에서 '무등+Dream' 전시 후 10년 만이다.

전시실에 들어서면 벽면에 걸린 다양한 작품들이 '고향 사람들'을 맞이한다. 오랫동안 작가의 길을 걸으며 자신만의 화풍을 구축한 이들의 작품은 그 자체로 빛을 발한다.

박봉수 작가의 '정화수' (井華水)는 화사한 동양화로 눈길을 끈다. 새벽나절 고향 부뚜막에 정화수를 떠놓고 집안과 자식의 복을 빌던 어머니와 할머니를 연상하게 하는 작품이다. 까만색의 우물정(井), 파란색의 물, 그리고 주위를 물들인 붉은 색은 복을 빌던 옛 어른들의 간절한 마음을 느끼게 한다.

김승근 작가의 '相生'은 푸른색 계열의 추상화다. 하얀 꽃과 흩날리는 푸른 잎, 전체적으로 생동감이 느껴지는 화면은 보는 이에게 편안함과 심을 준다. '相生'이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가 가늠된다.

송용 작가의 '시.공.새'는 철학적이지만 무겁지 않고 경쾌하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사이를 비행하는 새의 이미지를 묘사했는데 구분할 수 없는 시공간이 모호하지만 아름답게 다가온다. 파란색의 하늘을 향해 날아가듯 솟은 육지는 산과 바다 등이 오색으로 겹쳐져 독특한 분위기를 발한다.

정란숙 회장은 "80대 작가들의 작품도 몇 점 있는데 관람객들이 보고 젊은 화풍에 깜짝 놀란다"며 "무진회는 앞으로도 꾸준히 출향작가들의 버팀목으로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난 20일 광주은행이 주최하는 제 7회 '광주화루 시상식'에 참석한 고병일(왼쪽 두번째) 광주은행 은행장과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전국 유일 한국화 공모전 '광주화루 시상식'

광주은행 주최... 대상 박진주·최우수상 김현호 작가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이 주최하는 제 7회 '광주화루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20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열렸다.

광주은행 광주화루 공모전은 지난 2016년 1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전국 유일의 한국화 공모전이다.

올해는 100여 명에 달하는 지원자들이 광주화루 공모전에 참여했으며 작품과 심층면접 등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10명의 작가가 선정됐다.

대상에는 박진주 작가가 선정됐으며 3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최우수상 수상자 김현호 작가에게는 상금 2000만원, 우수상을 수상한 김중규·박경진·시원 작가에게는 각각 1000만원이 수여되는 등 총 10명의 작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주화루는 광주가 한국화의 전통과 맥을 지키

는 '보루'가 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광주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행사다. 광주화루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한국화 분야에 특화된 대표 공모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상작을 관람할 수 있는 '광주화루 10인의 작가' 전시는 광주은행 본점 1층 광주은행 아트홀에서 진행된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광주은행은 오랫동안 지역 공공문화예술 사업에 적극적인 후원자로 참여해오고 있고, 지역 내 경쟁력 있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독자적인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금융을 넘어 지역 문화·예술 및 스포츠 분야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지역과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는 광주·전남지역의 대표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작년 '메이드 인 광주'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 <광주영화영상인연대 제공>

독립영화 성과 나누고 90년대 영화 살펴보다

광주영화영상인연대 '메이드 인 광주 2023'... 24일 광주독립영화관

메이드 인 광주, 광주에서 한 해 동안 만들어진 독립영화들을 함께 감상하고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이사장 이상훈)가 광주독립영화관의 성과를 나누고 90년대 영화를 돌아보는 '메이드 인 광주 2023-미래 아카이브 열병들'을 오는 24일 오후 3시 광주독립영화관GIFT에서 연다.

2018년 개관 이래 꾸준히 진행해 온 이번 행사는 광주지역 영화 상영, 라운드테이블, 광주영화학교 졸업식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90년대 광주독립영화 제작 풍경에 대해 이야기하는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며, 한국(독립)영화사에서 변곡점 역할을 한 5·18광주민주쟁쟁 이후의 영화 서사를 논의하게 된다. 강소희(영화모임 인식), 박성배(영화감독), 임용철(민연

민씨네), 조대영(굿펠라스) 등이 참석해 당대 광주독립영화를 발굴한다는 계획.

발굴한 90년대 독립영화들은 디지털아카이빙, 영화/영화인 데이터베이스 작업 등을 거쳐 내년 초 광주독립영화사 상영회 기획전 자료로 활용된다.

오후 6시부터 '2023 광주영화학교' 졸업식이 열린다. 영화학교 결과물로서 편지 단편영화 '블루오션', '첫 출동', 'ZIP!'을 상영 후 GV(관객과의 대화)를 연다. 이세진 피디가 진행을 맡는다. 이외 영화인 네트워킹 파티도 마련된다.

광주영화영상인연대 이상훈 이사장은 "좋은 장르는 아니더라도 열정으로 영화를 만들었던 90년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라며 "이번 행사가 광주 영화사에 창작에 대한 열기를 보태는 촉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유민 기자 rubi@kwangju.co.kr

만추 풍경 속 '천불천탑 단풍전 음악회' 오늘 황순칠 갤러리

저물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천불천탑 단풍전 음악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23일 오후 5시 30분 황순칠 갤러리(광주시 남구 송하동).

이번 단풍전 음악회는 그림과 음악이 곁들여지는 시간으로, 황 작가의 피아노 연주와 더불어 화순 운주사 만추의 풍경도 감상할 수 있다.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구름담 가을', '칠층담 가을' 등 단풍으로 무르익은 작품들도 만난다.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서너차례 개최한 '황순칠 음악회'는 소규모 음악회다. 피아노를 배우는 어린 딸과의 추억을 위해 시작했지만, 이후 피아니스트가 된 딸이 일정상 함께하지 못할 때도 있었다.

이번 음악회는 딸 상희 양도 함께 무대에 선다. 조선대 음악교육과를 졸업하고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황상희 씨는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등을 연주한다. 황 작가도 무대에서 즉흥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게스트로는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강명진이 출연해 '내사랑 내곁에', '세월이 가면', '마법의 성' 등 대중가요를 비롯해 '바이올린을 위한 탱고' 등



사찰에 펼쳐진 황순칠 화가의 작품.

을 연주한다.

강명진은 미 노스웨스턴 대학, 음악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전문연주단체 앙상블 아르코 대표로 있다. 인천아시아게임 개막식 연주,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초청연주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쳤다.

황순칠 화가는 "지난 2013년 향아리 탑 하나를 그리러 가서 탑을 완성 후 석불을 한 점 더 그리러

한 것이 오늘에 이르렀다. 석불을 주 소재로 했다가 탑을 그렸는데 설경을 배경으로 했다"며 "더 나아가 가을 단풍이 물들면 이를 그렸는데 일반적인 풍경화는 청년 때 외엔 하지 않았다. 특별한 운주사 장소를 그리다보니 풍경화까지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40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보청기

Since 1982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